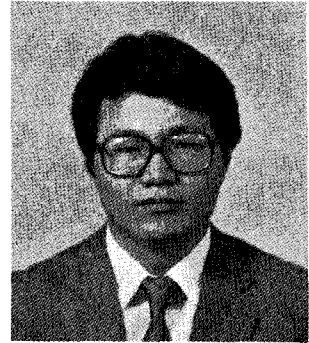


# 무분별한 축산물 수입은 농민의 고귀한 땀, 구농의 집념을 짓밟는 행위



정 부 진

(제일제당 사료사업부  
천안사무소 건대 줄)

**세계의** 무역환경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통산이 발달되고 국가간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 상호간의 상품이동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자국(自國)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은 될수록 억제하여 무역수지상 많은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추구하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이와같은 정책으로 임할 때 무역마찰은 피할 수 없는 국제적 현상이 되어 버릴 것이다.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의 축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 등 축산선진국에로부터 옥수수, 콩, 밀등 방대한 양의 사료곡물과 2차 생산물인 쇠고기, 분유 등이 수입되고 있으며 그 여세는 좀체로 수그러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실정에서 사료원료의 수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쇠고기, 분유, 축산가공 통조림의 수입은 축산인 바로 농민의 생활기반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83년 말부터 시작된 한우등 비육우 가격의 폭락과 연초로부터 계속된 우유대금 지급 지연 사태는 바로 농축산물 수입이 빚어낸 결과의 심각성을 보여준 실례였다.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축산물의 소비 또한 증가일로에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의 농촌도 경작위주의 농업에서 벗어나 점차 축산을 포함한 복합영농으로 바뀌고 있으며 축산도 부업형태에서 벗어나 사육 규모가 확대되는 전업화의 길을 지향하고 있다. 이제는 농촌경제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여 진 것이다.

요즘 농촌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의욕에 넘쳐 축산을 하고 있으며 이제 막 평생의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 우리의 농촌이 동공화(洞空化) 되었고 머지않아 집단 양로원화될 위험마저 안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현상은 농촌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분별한 축산물의 수입은 '언땅을 뚫고 나오는 가날픈 짝을 잘라 버리는 무자비', '나무에 오르고 있는 사람을 밑동에

서 흔들어 버리는 물지각'에 지나지 않는다.

축산물 수입을 농촌문제와 연계시켜 생각해 볼때 수치의 대차(貸借)로는 따질 수 없는 득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축산물 수입이 억제되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째, 가축을 기르는 사람은 흙을 사랑하고 자기의 순수한 땀은 퇴적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끼고 그 소득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날로 심각해지는 농촌의 문제를 직시하고 헌신적 자세로 농촌에 뛰어들어 구농(求農)의 집념을 불태우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산물의 사려없는 수입은 「귀한 땀」을 헛되게 하고 「구농의 집념」을 무참히

채무국이며 그 규모는 50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그 외채는 원리금 상환에다 수지적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가난한 집안은 시장에 나가 물건구입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이것은 절약의 기본이며 부를 축적하는 기초이다.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축산물 수입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빛을 줄이는 길인 것이다.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자원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뜰히 이용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신흥공업국이다. 수차례의 경제개발계획에 힘입어 오늘의 한국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업선진국에서 볼 수 있듯이 업에만 치중하다보면

## ●특집 / 나의 의견

고 경쟁력을 키워 급기야 수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축산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당국에서도 상대국의 개방압력에 무조건 문호를 개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촌과 축산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을 결정·집행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정부에서 농촌문제를 심각하게 인식, 농촌경제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국의 축산인들이 그 대책

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네 축산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뒤떨어져 있다. 때문에 앞으로 분발하면 발전할 여지 또한 매우 많은 산업이다.

축산인이 노력을 배가하고 정부당국에서 정책적 배려를 다해 줄때 우리나라 축산은 축산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고 축산시장의 개방위협앞에서도 의연해 질 수 있을 것이다.

